

불교학계 디지털화 'JAMS' 놓고 고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학회운영 투명화 vs 편집기능 약화 갈등 의견 양분

학계가 디지털화를 화두로 변화하는 가운데 불교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잼스'(JAMS,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가 있다. 최근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와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학회지 투고논문들 '잼스'를 통해 받는다고 공고했다.

'잼스'는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2013년부터 학회 운영 전산화화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학회 홈페이지부터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일정, 회원 관리 등을 통합한 것이다. 논문투고 및 심사, 전자출판, 그리고 학술진흥재단 쪽으로의 학술정보 제공까지의 학회 행정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다. 학술진흥재단은 권장사항으로 서버와 홈페이지 등 이 시스템을 현재 무상보급하며 학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현철 학진 학술기반진흥팀 팀장은 "잼스 도입은 학회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류관리를 전산상으로 하여 비밀보장에 유리하며, 학회 운영이 투명화된다"고 장점을 말했다.

잼스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신규탁 한국선학회장은 "학회 평가에도 일정부분 이점이 있다"며 "논문유사도 검사도 학진DB와 연동해 자동으로 진행되며 심사과정도 투고자가 명확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논문투고 시에도 그동안에는 운영진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마감시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잼스를 이용하면 이런 부분이 차단되는 등 운영이 체계화된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에 2013년과 2014년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 학회는 370곳, 신청학회가 200여 곳을 넘어섰다. 올해까지 600여 곳이 이 시스템을 운용한다.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학회 2100

곳 기준 30% 수준으로 올해부터는 일반학회도 신청을 받기에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불교학계에서는 등재지 학회 12 곳 중 한국선학회와 불교학연구회만이 이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유는 잼스가 지닌 여러 장점에도 편집기능 저하와 학회 운영이 공개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영섭 한국불교학회 편집이사는 "모든 것이 전산화돼 기계적으로 진행된다. 가령 학회에서 제시하는 논문 게재 분량 60%를 초과하면 기존 운영방식에서는 조정을 해 맞추지만, 잼스에서는 뺄 수밖에 없다. 학회지 기능 중 편집기능은 심사위원 선정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회원관리 · 논문심사 한번에

무료보급에도 불교계 2곳만 장단점 극명, 학계 고심 중

이밖에 심사를 위해서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해 심사가 번거로운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불교계 학회들은 잼스 도입을 고민 중이다.

한 불교학자는 "잼스 도입 이전에는 한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학회 외에도 여러 학회에 적을 올리는 관행을 막기 위함이 있다"며 "전산화를 통해 학진이 회원수가 중복보고된 부분을 파악할 것이다. 결국 학진이 노리는 것은 실질적인 학회 운영, 참여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잼스를 도입한 불교학연구회는 불교학계 최초로 학회지를 전자저널로 전환했다.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연구〉는 전자책(ebook)과 PDF파일 두 가지 형태로 간행되며, 회원들에게 이메일 형태로 발송한다. 노덕현 기자



봄소식... 범어사에 활짝핀 홍매화

남쪽으로 봄은 일찍 찾아온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남도 사찰이다. 사찰에 있는 매화는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중국 시경(詩經)에는 "매경하고 발청향(梅經寒苦 發清香)"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매화는 혹독한 추위의 고통을 이겨내야 맑은 향기를 풍긴다는 뜻'이다. 아까가 움츠리게 만들었던 한겨울을 이겨내고 한껏 꽃망울을 피어내는 매화는 고고한 것을 보여준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피어난 인생의 결실은 어떠한 것보다 의미가 있다. 2월에 왔든 봄어사에는 이른 봄을 알리는 매화가 벌써부터 피어났다. 봄은 벌써 꽃을 타고 성큼 다가왔다. 글=신성민 기자

남쪽으로 봄은 일찍 찾아온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남도 사찰이다. 사찰에 있는 매화는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중국 시경(詩經)에는 "매경하고 발청향(梅經寒苦 發清香)"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매화는 혹독한 추위의 고통을 이겨내야 맑은 향기를 풍긴다는 뜻'이다. 아까가 움츠리게 만들었던 한겨울을 이겨내고 한껏 꽃망울을 피어내는 매화는 고고한 것을 보여준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피어난 인생의 결실은 어떠한 것보다 의미가 있다. 2월에 왔든 봄어사에는 이른 봄을 알리는 매화가 벌써부터 피어났다. 봄은 벌써 꽃을 타고 성큼 다가왔다. 글=신성민 기자

조계종, 불교음악 육성 나선다

11일 '불교음악원 설치 및 운영' 중령 입법예고

사무국 봉은사에 설치

조계종이 불교음악을 전승하고 보급하기 위한 '불교음악원'을 설립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2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불교음악원은 불교음악의 진흥 및 전승, 교육,

학술연구, 교류, 창작, 보급, 선양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불교음악원은 교육과정으로 △ 불교음악 최고위 과정 △ 불교음악 지도자과정 △ 찬불가 최고위 과정 △ 기타 불교음악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입기 2년의 불교음악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위촉하며 사무국은 서울 봉은사에 설치한다. 불교음악

원은 봉은사의 국악합주단 창단을 계기로 중단 차원의 기구로 설립하게 됐다. 봉은사에 이어 조계종 주요 사찰에서도 국악합주단 등 불교음악단체를 잇따라 설립해 불교음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금과 피리 등 10가지 악기가 협연을 펼치게 될 봉은사 국악합주단은 봉은사 각종 법회에서 영산회상을 비롯해 전통불교음악, 예불의식음악, 찬불가 등 다양한 불교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1033호 INDEX

기획특집

불교TV 개국 20년

역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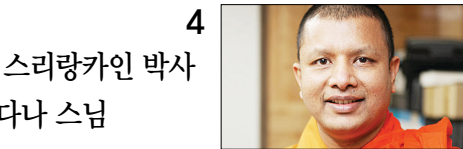


5

불자들

위대대 스리랑카인 박사

시라라다나 스님



4

해인총림 방장 선출 경선 체제로 가나

대원 · 원각 스님으로 압축... 3월 7일 산중총회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3월 7일로 예고된 가운데 새로운 방장 선출을 위한 문중 간 움직임이 빨라졌다. 현재 해인사 서당 대원 스님과 유나 원각 스님이 방장 후보로 추대돼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인사는 2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9대 해인총림 방장 후보 학산 대원 대종사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음을 알렸다. 이날 모임에는 62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추천위원장으로 해인총림수좌 원용 스님, 동당 세민 스님, 율주 종진 스님을 추천하며 9대 해인총림 방장을 추대함에 있어서 반불교적 비승가적인 중상모략의 모습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민 스님은 "해인총림의 수행승풍을 진작하고 원용화합의 정신을 구현할 방장으로 대원 스님을 추천한다"고 밝혔고, 율주 종진 스님은 "청정한 승풍을 진작할 후보로 대원 스님을 추천하며 9대 해인총림 방장을 추대함에 있어서 반불교적 비승가적인 중상모략의 모습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위원들은 총림의 화합을 위해 모든 사중의 대종이 만장일치의 추대 형식으로 최고 어른을 모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로운 해인총림 해인사의 방장을 모시는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미 해인사 홈페이지를 비



대원 스님

원각 스님

롯한 6대 암자 대표들은 법전 대종사 49재 직후인 2월 9일 원당암에서 모임을 갖고 '해인총림 제9대 방장추천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당시 6대 문중 대표들은 유나 스님을 맡고 있는 원각 스님을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6대 문중 측의 방장추천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원학, 여연, 향적 스님을 만장일치로 이름을 올렸다.

해인사 서당 대원 스님은 상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2013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된 스님은 현재 고암문도회 회주와 공주 학림사 오동선원 조실을 맡고 있다.

해인사 유나 원각 스님은 1967년 해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해인사, 극락암, 송광사, 상원사, 범어사, 불국사, 삼무주암 등 전국 선원에서 정진을 해온 수행자이다. 2003년부터 해인사 유나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호선 봉은사역에 만족거는 개신교

장로교총聯 등 역명 제고 성명... "문화유적 아니다"

3월 28일 개통하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5개 역 중 봉은사역 명칭을 두고 개신교가 반발해 반쪽을 사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11일 '서울시는 봉은사 역명 제정을 재고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불교인이 아니라면 코엑스가 훨씬 귀에 익은 명칭이고, 외국인들에게도 코엑스역이 자연스러운 역명이라 할 수 있다"며 "봉은사를 불국사와 같은 대표적 문화 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사자인 교회들의 성명에

봉은사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역시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교회들의 반발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봉은사는 강남이 허허벌판이었던 시대부터 1200년을 지켜온 고찰"이라며 "현재 강남이 있기까지 봉은사가 가진 역사성은 매우 크다. 전통문화의 측면에서 이를 바라봐야지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2015년 JAMS 시스템으로 개편한 불교학연구회 홈페이지.

디자인 등록원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청동촛대세트

촛대 (大)

촛대 (中)

촛대 (小)

향로

향통

다기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품명	규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大) 15.5cm×7.5cm
	(小) 11.7cm×5.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